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류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 하는 인생 이모작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즉, 제가 그동안

현재를 기준 2000년~2020년 사이를 현재로 설정을
했을 때 20세기까지의 보통 교육하면 학교교육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평생교육이다,
평생학습이다 하는 개념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 닿지는

않았죠. 하지만 상황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학교교육보다도 서서히 그 교육의

무게중심이 평생학습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면 학교교육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또 학교교육, 공교육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모형을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1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걸쳐서 대학 4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을 청소년기의 교육으로 학교교육으로
간주한다면 그 이전에 취학 전 교육으로서는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가기 전까지 해당되겠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태어날 때는 아마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돌봄을

받거나 그러지는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태어나서

1년 동안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자녀로
태어났을지라도 엄마가 안정적으로 유급 휴직 상황에서

정서를 강화시켜주는 정서 중심의 모자 교육 과정이 국가
주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선택적으로 엄마가 할 수도 있고, 또는 친척이나 할머니,
또는 베이비시터가 투입되어서 또 1년간은 감각 중심의

놀이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년 정도는

이제 공교육에 투입할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적응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을 국가가 운영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유치원부터만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은 국가가 주도한다는 이런 형태로서 아마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해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치원에 입학한 청소년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상당 기간 동안 그 전문 분야에 종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평생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 이후에 여러분들과 관련된 평생학습의 교육과정을 크게 3개의 영역으로 한번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중심의 유지 및 강화 교육 과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는 과거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취업한 다음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대부분 대학이나 고등학교 때 학습했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소진됩니다. 또는 정년이 5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직무를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다음에 5년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국가가 주도를 하든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든 간에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평생학습계좌제와 같은

어떤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재취업 중심의

재활 교육과정인데요. 이것은 출발점은 거의 대부분이 비슷하게 일자리로 취업을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은퇴를 하는 시점은 개개인마다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한 상태이거나 또는 무직이거나,

또는 앞으로 근무해야 될 횟수가 5년이 채 안 남은 그런 중년의 성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취업 중심의 재활 교육과정. 왜냐하면 미래사회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로봇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강화됨에 따라서 일자리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평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사회가

시작될 거로 내다보입니다. 따라서 퇴직자나 장애인자 등을 대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돈을 벌겠다는

생계형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치관형의

재취업 교육과정과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되겠지만 개개인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개성과 취향에 맞도록 이런 준비는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학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형태로 5년 이후에 정년을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착륙하는 형태의 연계형 교육과정을 저는 재취업 중심의 재활 교육과정 이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어쩌면 이번 강좌 주제인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 이모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끝으로

제2의 인생을 어느 정도 절정기를 지나고 이제 서서히 두 번째 인생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평생학습의 모형은 '노후를 위한 여생설계

교육과정'입니다. 이 대상은 주로 적어도 80세 이상의 장년계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오늘날의 정년 개념으로 어림잡아 계산해 보더라도 미래사회에서는 출생 후 정년 시점까지의

기간보다 정년 이후에 살아가야 할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머지않아 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여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나 식습관,

또는 적절한 노작활동이나 신체활동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교육이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한 여생을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계 또한 구축해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길고 긴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도 살아도 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제 그런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저는 노후를 위한 여생설계 교육과정이라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와 같은 큰 평생학습의 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다면 아마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보람된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하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융복합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